

월요광장

정 깊어진 이상들과 결별하기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의 인식과 판단이란 얼마나 빈약하고 열량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제까지 알았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큰 배신감과 격한 분노를 느낀다.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고 부정해야 하는 탓이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과 인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들 판단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상대가 속인 것으로 단정하고 비난한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멈추면 판단의 오류는 계속되고 분노로 인한 무력감 또한 습관이 될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자주 혼란시키며 미망에 빠지게 하는가? 프랜시스 배

이컨(1561~1626)은 우리 안에 친밀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상들을 지목한다. 이 이상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세상살이의 원리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상들을 스스로 쌓아 올린 생각의 방식과 논리 체계로 여긴다. 아무도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 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판단 근거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네 가지 오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먼저 종족의 이상이다. 이 이상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조직, 종족, 단체와 학파 등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게 함으로써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이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눈다. '우리'는 절대선이며, 저쪽 사람은 사라져야 할 절대적인 악이다.

두 번째 이상은 동굴의 이상이다. 동굴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즉 자신이 아는 것이 곧 진리이며 세계의 본질이다. 그러해서 이 동굴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앞과 경험 위에서 '원칙'을 만들고 '신주단지'로 모신다. 즉 이 원칙이 동굴을

지키는 이상의 이상인 셈이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원칙을 앞세우며 조금도 사심 없는 '섬김'을 말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많다. 그런데 각각의 이름을 세긴 동굴마다 화려하게 내걸린 원칙들은 너무나 남루해서 참으로 낯 뜨겁다. 원칙이란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방향이며 실천의 행동이다.

세 번째가 시장의 이상이다.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편견의 이상이다. 베이컨은 왜 언어로 인한 판단 오류를 시장의 이상이라고 했을까? 시장은 합리적인 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시끄럽게 과장된 목소리로 '가짜'들을 팔고 서로를 속이면서 오직 이익을 쟁기려고 모여드는 곳이다. 요즘 말로 '시정물'을 높여서 대박을 노리는 곳이다. 이 시장의 이상이 지배하는 데서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판을 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시장의 이상은 말을 독점하고 권력화해서 이득을 쟁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상이다. 하지만 이 이상의 운명은 사실 시장에 모여서 시정물을 높여 주는 사람들의 손안에 있다.

끝으로 극장의 이상이 있다. 무대 위의 연출과 연기를 사실로 믿는 것이다.

관습과 권위에 약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아무개'라는 권위나 '방송'과 '신문'에서 자주 본다는 것만으로, 의심은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이 극장의 이상을 통해서 정당함과 부당함, 정의와 불의의 관계는 뒤집히고 왜곡되어서 사방으로 퍼진다.

이 네 가지 이상들이야말로 보이는 것 너머의 엄밀한 사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이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인식의 방식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서 베이컨은 있는 것을 모으기만 하는 개미나, 자신에게서 뽑아낸 실만으로 집을 짓는 거미가 아니라, 부지런히 모은 재료로 꿀을 생산하는 '꿀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베이컨의 이상론은 우리가 왜 깊 들어진 이상상배를 멈추고, 스스로의 엄격한 판단으로 인식의 꿀을 생산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자신의 부분적 경험이나 관념만으로는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없고 그저 이상상배자로 남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이상이 되고자 한다. 이 때, 그 이상들과 과감한 결별을 해야 할 때다.

社說

5·18 실무 조사관 자격 요건 재조정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될 실무 조사관의 연령 제한 등이 폭넓은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만 60세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5·18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 연구자 대부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를 단기간 3년짜리 일자리를 위해 공모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게 5월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되면 5·18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조사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조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빠른 진상 조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관 임용자에 대해 기존 기관 복귀 보장 또는 겸직 허용과 함께 상당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 화폐 '현금깡' 악용 방지 대책 마련을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 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경쟁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득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악용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은 올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11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53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공익 수당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발행 시스템과 판매 구조가 허술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나주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 5% 할인하는 혜택을 악용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허위 가맹점들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정상으로 현금화, 8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외 법인의 구매

한도가 없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손쉽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러한 허술함은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여수시의 경우 관내·관의 법인에게는 구매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할인율을 6%로 적용하고 있다. 목포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할 안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함평·영암 등도 직접 영업장을 확인해 유령 가맹점이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대해 과태료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허위 가맹점들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정상으로 현금화, 8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외 법인의 구매

꿈꾸는 2040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임한필
위민연구원 이사·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최근 광주 기초의회에서 야기된 '외유성 출장 논란' '해의 연수 시 사전 심의 부재' '노래방 성추행 의혹' 등이 기초의회 폐지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며, 행정 기관을 감시해야 할 기초의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격한 여론도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정치 부재'의 시대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와 투표 이후 4년간 국민과 시민의 대표자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때론 소통해 나가는 매개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호남과 같이 특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의회 시민모니터링단 등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과 의원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해야 한다.

소위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에는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정치·여성·청년·장애인·노인·일자리 등 여러 어젠다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많다. 시민들의 연합 단체 또한 많다. 하나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5개 구 지역의 개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리 많지가 않다. 올해로 창립된 지 21년이 되는 광산시민연대는 25명으로 구성된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을 최근 발족해 구정 지기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갖고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광산구 구의원 17명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초의원들의 역할은 조례 재개정, 질의 및 발언, 행정 사무 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 공약 실천, 민원 처리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니터링단 또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광산시민연대 구정지기단도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매주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고 있다. 또한 구의회 의장과 구정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적극적인 소통도 진행하고 있다. 자치 시민과 구민을 대신하여 의회를 모니터링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활동이 특정 세력의 개입을 통한 압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의연하게 나섰던 호남 의병의 정신인 '의(義)를 지켜나가는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 있는 시민'이 광주에는 있었다. 이러한 정신과 실천의 문화가 1980년 5월을 만들어내고 1987년 6월을 만들어냈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논하기 앞서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가 '위임 받은 권력'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 지역의 정치는 우리가 바꾼다'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의회 모니터링단이나 구정지기단 등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이 뽑은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공명정대하게 감시 및 평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을 통

해서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해서 뽑은 대표자였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적 통제'가 '위임 받은 권력'에게는 항상 필요함을 기억하자.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나갈 때 스스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의회 감시 및 평가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질 향상과 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고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공존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에 힘써야 한다. 셋째,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정기적인 연수 교육 및 실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광산구에서 시작된 기초의회 모니터링 활동이 향후 광주 지역 5개 구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구의회를 감시하고, 광주 시의회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시청과 시의회, 구청과 구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시민 모니터링단을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운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시민과 언론에 공개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황룡강 습지 보전 이대론 안 된다



류복현
전 광산문화원장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시민들은 '황룡강 장복습지'를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그리고 공론화 여론조사에서 찬성 85.8%, 반대 14.2%란 결과가 나왔다. 찬반 해석을 두고 분분한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습지의 보존과 대책은 지금부터다.

황룡강은 본디 바다였다. 그러나 황룡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태평을 무시하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면서 황룡강이란 자연의 생명 줄은 그때부터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 농업 용수를 확보하

기 위해 장성댐을 축조하자 황룡강은 재정 능력을 상실하고 갯강에 불과한 도랑 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거기에서 산업 시설에서 쏟아진 오폐수와 농사철 농약 살포는 황룡강 수질을 1급수에서 4급수까지 떨어뜨려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필자는 평생을 두고 황룡강을 지켜본 사람이다. 어렸을 때 황룡강에서는 삼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은어들이 서식했다. 잉어, 붕어, 메기, 날치는 물론 자라까지 모래톱에서 발에 밟힐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목포 하구언을 축조하기 전에 큰물이 지면 송어와 전어 등의 바닷고기들도 황룡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풍부한 물고기 생태계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건축 자재인 골재 채취가 무작위로 이루어져 강을 망가뜨렸으며, 공장과 주택가의 폐수 유입으로 하급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른다. 하절기 큰물이 지면 위에서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흉측스럽다 못해 역겨울 정도로 내려온다. 바로 요즈음 습지 보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생식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큰물만 지면 쓰레기 더미가 나뭇가지에 걸려 훔칠 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동물 사체까지 떠 내려와 부식되는 바람에 썩은 냄새가 여름 내내 지독하게 풍긴다.

1989년 광주-전남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황룡강 제방이 범람하자 송정동을 비롯해 동곡동과 평동동 일대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황룡강 제방을 끼고 있는 주민들은 홍수의 범람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히 나주 시연산포의 둑이 무너져 광산 지역의 더 큰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다.

생태계 보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피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되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잘못되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홍수를 피해 가려면 직강 공사부

터 서둘러야 한다. 과거 무작위로 파헤쳐 버린 황룡강은 여기저기 웅덩이가 많아 물 흐름이 제멋대로다. 그래서 지금의 꾸불꾸불한 형태를 직강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물 흐름을 방해하는 수생식물들을 모두 강 양쪽으로 옮겨 정비하고 강물은 한가운데로 흐르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홍수가 나도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으며 쓰레기도 정제되지 않아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황룡강은 수량이 부족해 약간의 담수로 물을 채워 주어야 한다.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담수를 해 주변 수생 식물이나 물고기들의 생태 기능을 확보해 주는 한편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장곡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한다. 과거 이 지역은 물이 많아 보트장이 운영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강과 다리를 이용해 볼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멀리 장성이나 장흥까지 가지 않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누군가가 다른 사람 지식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가치의 절반을 지불한다. 누군가가 그와 동등한 지위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빨을 부러뜨린다."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편찬한 법전의 내용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이 법전에서 비롯된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이나 형법에 관한 개념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시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부족과 같은 소규모 집단 구성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전 지구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 같은 형법 제도는 특히 이슬람권에서 요즘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7세기 이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을 율법인 '샤리아'에 도입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받은 방식 그대로 되갚는다'

는 뜻의 '키사스'(Qisas)가 그것인데, 이란과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이에 법제화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이란의 경우 형법에 명시된 '생명의 키사스'에 근거해 살해 피해자의 가족이 법원에 가해자의 사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사형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 진행과정을 보면, '받은 대로 갚는다' 키사스의 정신도 '강력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찻찻한 생각이 든다. 자국의 전에서 비롯된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이나 형법에 관한 개념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시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부족과 같은 소규모 집단 구성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전 지구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 같은 형법 제도는 특히 이슬람권에서 요즘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7세기 이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을 율법인 '샤리아'에 도입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받은 방식 그대로 되갚는다'

할 말은 하는 한국

사령관을 살해한 미국이 '피해의 댓배로 갚는다'는 의미의 '불균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서 못한 시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부족과 같은 소규모 집단 구성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전 지구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 같은 형법 제도는 특히 이슬람권에서 요즘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7세기 이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을 율법인 '샤리아'에 도입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받은 방식 그대로 되갚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